

카페베네의 새로운 매거진

우리동네 Side B

햇살이 비치는 작은 골목길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나날들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보통 사람들

하지만 그 이면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
소중한 이야기들이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카페베네의 동네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우리동네 Side B를
산책하듯 천천히 훑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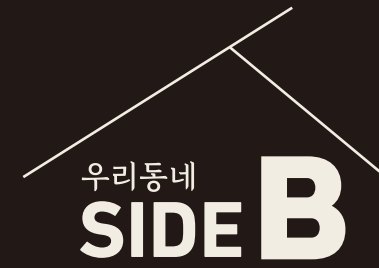
Vol.1

우리동네
SIDE B

‘우리 오늘도 거기서 만날까?’



CAFFE BENE



우리동네
SIDE B





Editorial

당신이 사는 동네, 어디까지 걸어봤나요?

오늘은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보다가 뒷골목에 몇 마리의 고양이 가족이 사는지,
세탁소 아주머니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등등
평소에 유심히 살피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았어요.

가까이에 있어서, 미처 더 깊게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못했던 나의 동네.
늘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나의 울타리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해
그 고마움을 쉽게 잊었던 나의 동네.



멀리 나갔다가 돌아와도, 언제나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네 골목길,
나이를 알 수 없는 소나무, 녹이 쓴 자전거 정류장, 낡은 간판의 슈퍼마켓...
그렇게, 따뜻하고 변함없는 [우리 동네]를 꼭 닮은 잡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동네에 얽힌 이야기들과 카페베네의 이야기를 함께 담고 싶었습니다.

번잡한 일상에 보드라운 커피 한 잔으로 심표를 찍듯,
이 잡지를 읽는 동안 독자 여러분들도
온몸과 마음이 나른해질 정도로 편안한 휴식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집장 류 은우

우리동네 베네캣의 하루

아주 느리게 흘러가는
새로운 시간의 방식

Am 06:00

아침형 고양이 베네캣은
오늘도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 공복으로 잤더니 눈을 뜨자마자 배가 고프네요.
바로 옆동네 군자동 순이와 아침을 나눠 먹을 거예요.



집 앞 공원을 갈 때도
여행이라 생각하고 발을 내디디면
그 길이 곧 여행길이 된다는 게, 베네캣의 산책 철학



Am 09:00 오늘 아침은 어제 먹다 남은 브로콜리예요.
밥을 먹고 나니 나른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산책을 떠나볼까요?

‘순이 안나옹, 여행 다녀올게옹’



Pm 03:00

귀엽게 쳐진 눈매,
배에서 발끝까지 이어지는 곡선,
폭신한 엉덩이의 주인공은?

골목길을 휩- 돌다가
갑자기 베네캣을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너무 귀여워서
꼼짝없이 바라만 보게 될걸요.





PM 6:00 특별히 치팅데이를 맞아 가장 좋아하는 구운 생선을 주머니에 한가득 담아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베네캣라이프

BENECAT LIFE 

베네캣 라이프, 들어보셨나요?

따뜻한 밥 한 공기만으로도 소박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뼘의 작은 공간에서도 행복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안주하거나 달콤한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더 넓은 세상과 높은 이상을 향해 매일 세상 속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베네캣 라이프입니다.

때로는 일상을 잠시 미뤄두고 동네 한 바퀴를 빙 돌아보세요 모르는 들꽃에게 말을 건네어보고 지나가는 구름과도 인사를 나눠보세요.

그렇게 걷다 혹시라도, 약간은 건방져 보이는 베네캣을 만나게 된다면 용기 내어 가볍게 아는 척 해주세요.

잘 기억해주세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친구였습니다.

Hello again.



PM 10:00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오늘의 여행도 참 행복했다옹...'



말 잘 듣는 우리 아이들

자..... 말들 잘 듣지?
하나, 둘, 셋 하면 나를 보는 거야
하나
둘
셋!!!

이런!!!!
스냅샤넛 니스파키 수녀 누샤 개 녀 18 크 스 77 20 나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찍어보고
그래도 안되면
말 잘 듣는 진돗개 한 마리 입양할란다.
하나~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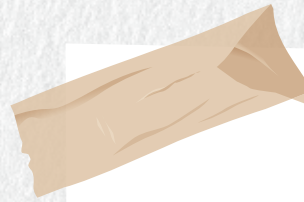


책	우
갈	리
피	동
	네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의 오랜 동네에도,
차 뒤꽂무니에 숨은
저 길고양이에게도,
끊임없이 흐르는 바다 물결 사이에도.

당신과 나 사이의
이 조그만 공간에도.



백석동 목욕탕 그곳엔

글 이 보라
그림 김 가인

누구에게나 '나만의 아지트'라 불릴만한
공간이 하나씩 존재한다.
긴 시간 머물러도 지겹지 않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곳.

나의 사랑스러운 최여사,
엄마의 아지트는 우리 동네 백석동 목욕탕.
엄마는 내가 7살이던 해부터 지금까지,
매주 하루도 빠짐없이 그곳에서
휴일을 보내신다.

우리 최여사님은 한 번 목욕탕에 들어가면
최소 4시간 안팎의 시간을 보내시는데,
그 중 실질적인 목욕 시간은
1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한증막 안에서 펼쳐지는
친한 단골 아주머니들과의 수다 및 한풀이
시간이다. 삼삼오오 모인 뜨거운 한증막
안에서는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 속 썩이는
자식 이야기, 오늘 저녁 반찬 이야기 등등
세상 모든 재미난 이야기거리들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연기와 함께 흠뻑 젖는다.

매주 만나는데 무슨 할 말들이 그렇게
많을까 싶지만 항상 마무리는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애가 올 시간이라서 ...
다음 주에 만나"로 끝이 난다.

그렇기에 나는 오히려 그 목욕탕은
잘 안 가게 된다. 왜냐하면 나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난 분명 처음 보는 아주머니인데
내가 몇 살인지,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일로
엄마랑 싸웠는지 등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영미 딸이라고 하면 "어머 영미랑 똑같네"
하시면서 내 등은 어느새 동네 아주머니들
손에 저절로 맡겨져 있다.

다른 곳에서는 엄마가 '보라 어머니'
이라 불리지만 이곳에서는 오히려
보라라는 나의 이름은 지워지고
'영미 딸'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운다.





이 목욕탕의 하이라이트는 김장철 때다. 이 시기가 되면 온 동네 김장 김치통들이 한곳으로 집합한다.

열이면 열,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돌돌 말아 텔레비전 앞 나무 단상에서 갓 김장한 김치와 훈제 계란을 먹는 정겨운 동네 아주머니들.

뒤에서 보면 누가 우리 엄마인지 알 수가 없다. '엄마~' 하고 불렀을 때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우리 최여사님이다.

집으로 돌아갈 때는 또 어떨까. 우리 집 김치는 저쪽 집으로, 저쪽 집 김치는 우리 집으로 이동하는 진귀한 김치 나눔 파티가 벌어진다. 그렇게 난 20년 동안 백석동의 김치통들 모두 한 번씩 맛볼 수 있었다.

작년 여름, 우리 집이 20년 동안 몸담았던 백석동을 떠나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백석동 목욕탕에서는 엄마를 위한 동네 송별회가 열렸다고 한다.

이제껏, 많고 많은 송별회들에 대해 들어보았지만 '동네 송별회'라는 것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행사였다.

그렇게 유별나고 시골벽적인 송별회까지 마쳤지만 엄마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왕복 한 시간이 걸리는 백석동 목욕탕으로 주말 출근 도장을 찍고 계신다.

크지도, 시설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닌, 오래된 건물 아래에 있는 작은 목욕탕이지만 동네의 정이 넘쳐나는 이곳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엄마의 안식처가 되어주길 바란다.



행복의 — 맛

어떤 단어에 ‘-맛’ 을 붙이면
그 의미에 대한 모든 감각이 되살아난다.

이러한 단어들은
적을 때도, 그것을 받을 때도 괜스레 기분이 좋으니,

하성란 작가의 <여름의 맛>이라는 소설도,
레드벨벳의 ‘빨간 맛’ 도, 어미 ‘-맛’의 덕을 톡톡히 본 것 아닌가

내게 있어 행복의 맛은 무얼까,

음악, 책, 걷기.. 뭐 이런 두루뭉술한 것들도 좋지만
보다 구체적인수록 행복의 맛은 더욱 짙어진다.

이는 곧 취향과 직결되는데
이를 태면,

<나는 차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보다,
유자청 두 스푼에 뜨거운 물을 붓고
사과 티백을 2분 정도 우려낸 빨간 차를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커피를 좋아한다> 보다는
진하게 내린 커피에 부드러운 우유 거품을 곁들여,
따뜻하게 내려 마시는 한 잔의 카페라테의 풍미를 좋아한다.

이렇게, 나의 감각을 구체화시키는 것.

“당신의 구체적인 행복의 맛은 무엇인가요?”

책	우
갈	리
피	동
	네

마음이 어지러운 봄날,
석촌호수 달리기

글 류은우
그림 함주혜



집을 나서 십여 분 남짓 걸으면
석촌 호수의 동쪽 끝에 다다른다.

동호와 서호로 나뉘는 석촌호수를 크게
한 바퀴 두르면 2.5km

츄츄한 일상에 작은 틈새들이 생길 때마다
나는 이곳을 달린다.

‘달리는’ 행위는 매우 단순하고 명쾌하지만
달리기를 통해 얻는 기쁨은 간단히 표현할 수 없다.

달리기를 시작한 지 벌써 3년.
혼자를 견디는 일이 조금은 버거워 시작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그 순간에는 철저하게 다시 혼자가 되어야 한다.

견디는 것은 외로운 일이지만
온전히 자신의 의지대로 견뎌내는 것은
꽤 보람있는 일이라 믿는다.
달리기는 모든 고통과 기쁨을 홀로 감당하고 견뎌내는 일이다.

5월의 석촌호수,
벚꽃이 지고 푸른 싹이 돋기 시작할 무렵,
사람들의 발걸음이 잠시 뜸해질 때
비로소 완벽한 달리기의 계절이 온다.

호수의 너른 품을 향해 외길을 달리기 시작하면
출발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길을 잃을 필요도, 헤맬 필요도 없다.
삶의 매 순간 강요되는 수많은 선택이 이곳에는 없다.

나뭇잎이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와 호수의 반짝임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와 표정 속에서
수많은 사연들이 내 곁을 스치고 지나간다.

뛰어난 거리만큼
숨은 가빠지고, 다리의 힘도 풀려가지만
그렇게 매일 석촌호수와 함께 하루하루를 견디어 나간다.

혹시라도 마음이 아주 시끄럽거나,
묵묵히 무언가를 견디는 날을 지나고 있다면,
석촌호수를 힘차게 뛰어보기를.

그 누구에게라도, 나의 석촌호수는
기꺼이 길을 내어주며 당신의 안녕을 함께 찾아갈 것이다.



“혹시라도 마음이 아주 시끄럽거나,
묵묵히 무언가를 견디는 날을 지나고 있다면,
석촌호수를 힘차게 뛰어보기를.”



‘독서와 걷기는 불행을 앗아가지는 못해도
나로 하여금 인생을 견디게 해주었다.’

그렇다면, 지난 25년 동안 나를 꾸준히 한 동네에 머물도록 한 용산만의 매력은 무엇일까.

모르긴 몰라도, 한 채에 몇 십억씩 한다는 아파트들, 5성급 호텔 및 쇼핑몰 등 용산이 가진 화려한 도시성에서 그 이유를 찾기는 힘들 것 같다.

어쩌면 오히려 그와 상반되는 매력이라 할 수 있는, 화려함 뒤에 가려져있는 소박함과 따뜻함이 아닐까.

아이파크 몰에 있는 대형서점이 아니라 100여 미터 떨어진 골목길에 자리한 헌 책방인 ‘뿌리서점’, 누구나 알고 있는 남산국립도서관이 아니라 길 건너의 자그마한 ‘용산도서관’, 고급 차와 고급 일식당이 가득한 동부이촌동이 아니라 교차로 건너편의 ‘서부이촌동 골목’과 ‘철길 건널목’과 같은 소박함이 갖고 있는 매력 때문에 나는 이곳에 정을 붙이고 살아간다.

유달리 생각이 많고 마음의 무게가 버거워질 때면 무작정 집을 나서서 우리 동네 용산을 하염없이 걷곤 했다. 그 속에서 무심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지나쳤다. 하지만 정작 그 걸음 속에서 가장 자주 조우했던 건, 바로 나 자신이다. 때로는 좌절 한 나를, 어쩔 때는 화가 난 나를, 때때론 행복한 나를 만나기도 했다. 나 자신과 나눴던 수많은 이야기들과 함께, 귀에 꽂은 이어폰 속의 나지막한 음악 소리, 그보다 더 작은 도시의 소음들, 그해 늦여름, 해질 무렵 불어오던 산들바람과 계절이 바뀌는 작은 내음 들, 용산을 걸으며 마주쳤던 삶의 추억과 조각들은 고스란히 내 마음 속에 남아있다.

독서와 걷기는 불행을 앗아가지는 못해도 나로 하여금 인생을 견디게 해주었다. 행운을 직접적으로 가져다주지는 못할지라도 가야 할 길에 대한 충분한 빛과 영감을 주었다. 그리고 용산의 수많은 골목길들은 나의 답 없는 질문에 위로로 건네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내가 가장 아끼는 공간은 ‘뿌리서점’이다. 반드시 소장하고 싶은 책이 생길 때면, 아이파크몰의 대형서점 대신 오래된 헌책방인 뿌리서점이 가벼운 주머니의 나에게 한줄기 빛처럼 구원이 되어주었다. 빛이 좋은 날 뿌리서점을 나서서 100미터 정도만 걸어가면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 나왔던 백빈 건물목과 조용한 골목길도 덩으로 만날 수 있다.

그곳을 지나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알 수 없는 위안을 얻었고, 아무도 없는 텅 빈 국립박물관 광장의 저녁 산책은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할 만큼 소중한 일상이 되어주었다. 아무 목적 없이 절두산 성당 방향으로 한강을 따라 걷다 보면 갖고 있는 모든 고민들이 어느새 사라지고 그저 새로운 내일을 겸허하게 시작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고는 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이곳에서 살아갈 것 같다. 용산을 떠나기에는 이 동네에 이미 너무 많은 신세를 저버렸고 그리움만 한 가득 쌓아 올렸다.

‘내가 사는 우리동네의 이름은 용산이다.’
<나는 용산 사람이다.>



슬기로운 커피생활

글 이보라
(a. k. a. 베네지기)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커피 없이 못 사는 사람과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커피 공화국이라 불리는 우리 나라에서는 전자보다 후자를 찾기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일상에서 필수불가결의 존재로 완전히 자리매김한 커피!
이 세상 모든 커알못(커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베네지기가
오늘 마음 먹고 커피 꿀팁! 대방출 할게요.

#1. 내 입맛에 맞는 원두 고르기

요즘 우리 동네에서 가장 핫하다는 그 카페, 저도 한번 가보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 막상 주문하려고 야심차게 메뉴를 살펴보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에티 어찌구, 과테 어찌구, 무슨 원두가 산미 블라블라.'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
이 중에서 내 입맛에 맞는 원두가 대체 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커피는 전 세계 약 70개 국가에서 생산되며 생산지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답니다.
커피 생산지를 살펴볼 때는, 보통 크게 네 개의 대륙으로 나누는데요, 같은 대륙에서 생산하는
커피들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맛과 향, 캐릭터를 가진다고 해요.



1.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는 전세계 커피 생산량의 약 50%를
공급하는 주요 커피 생산지이며 이 중 브라질과
콜롬비아 커피가 가장 유명합니다. 브라질 커피
는 바디감이 높고 맛이 구수하면서 신맛이 적고
묵직한 맛이 느껴지는 편이에요. 콜롬비아 커피
는 과일의 향과 맛이 조금 더 짙으며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습니다.

2. 아프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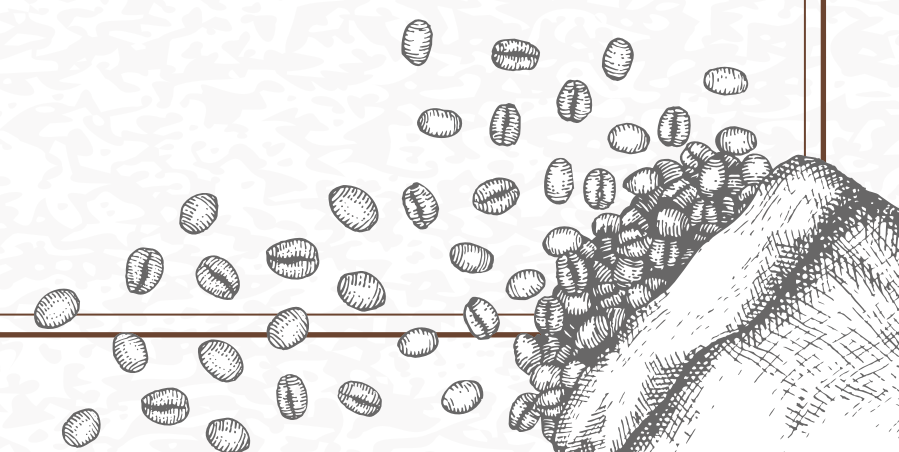
아프리카는 커피가 발견된 곳이며 대표적인 나라
로는 에티오피아, 케냐, 르완다 등이 있습니다. 에티
오피아 커피는 초콜릿 같은 달콤함과 꽃 향, 과일
향이 잘 어우러져 산도가 좋은 커피이고, 케냐 커피
의 경우 신맛과 단맛의 조화가 좋으며 밸런스가
좋은 커피입니다.

3. 아시아

아시아에는 대표적으로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커피가 재배되며 주로 로부스타를 생산
합니다. 강수량이 풍부하고 온도 분포가 고르기
때문에 대부분 깊은 향과 무거운 바디감을 가지
고 있어요. 다크 초콜릿 향이 나기도 하며 산미
는 적은 편이라 블렌딩에 많이 사용되죠.
(*여기서 잠깐! '바디감'이란 입 안에 커피가 닿
았을 때 느껴지는 무게감을 의미해요. 수많은 커피
의 원산지 중 내가 선호하는 지역은 어디인지 찾
는 것도 커피를 마실 때의 하나의 재미 요소가
될 수 있죠)

4. 중앙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에는 대표적으로 과테말라, 엘살바
도르, 코스타리카 등이 있습니다. 중앙아메리카
스페셜티 커피 농장들은 소규모로 되어 있으며
다양한 커피들이 생산됩니다. 대부분 부드러운
면서 단맛이 나고 견과류와 초콜릿 맛이 두드러
지죠.





#2. 맛있는 커피란 어떤 커피일까

맛있는 커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맛있는 커피의 기준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면
 아마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어도 정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맛있는 커피를 위한 6가지 원칙은 있습니다.
 신선한 볶은 커피, 청결한 기구, 신선한 물,
 기구에 맞는 적당한 굵기, 적당한 분량, 추출 시간과 온도를 지키는 것.
 이러한 원칙들이 잘 지켜진 커피가 일반적으로 맛이 훌륭하다고 해요.
 하지만, 이러한 원칙 외에도 내가 커피 마시는 날의 분위기나
 그 날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도 커피 맛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죠.
 한가로운 주말 오후, 좋아하는 카페에 앉아
 취향에 맞는 커피를 행복하게 즐긴다면
 손에 들린 그 한 잔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 아닐까요?

#3. 스페셜티 커피란?

스페셜티 커피의 정확한 정의는 미국스페셜티커피협회(SCAA)의
 평가를 거쳐 100점 중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우수한 등급의 커피를 말합니다.
 결점도 수, 고유의 향미, 개성, 재배한 사람,보관 과정, 균일한 맛 등 조건이 까다로워
 이를 통과하는 커피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을 통과한 스페셜티 커피는 다양한
 플레이버, 부드러운 바디감,깔끔하게 떨어지는 뒷맛 등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죠.
 일반적으로 '스페셜티 커피' 라고 하면 신맛을 가장 많이 떠올리는데요,
 하지만 산미는 로스팅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니깐요,
 신맛을 너무 두려워마시고, 한번쯤은 도전해보셔도 좋겠네요!

#4. 카페에서 바로 쓰는 커피 용어

1. 콜드브루

원두에 저온의 물을 천천히 떨어트려 길게는 12시간 가량 추출하는 방식으로 만든 커피입니다
 장시간에 걸쳐 만들다 보니 '천사의 눈물' 이라는 귀여운 애칭으로 불리기도 해요.

2. 더치 커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지만, 실제로 더치 커피는 콜드브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3. 드립 커피

분쇄된 원두가루에 물을 붓고 필터로 커피를 거르는 과정을 거친 커피,
 다른 말로 브루잉 커피, 필터 커피란 말로 통용되기도 합니다.

4. 싱글오리진

요즘 가장 자주 눈에 띄는 커피 용어이기도 하죠.
 싱글오리진은 원두를 블렌딩하지 않고 단일 원산지의 원두만을 사용해 볶은 커피를 말합니다.
 커피는 생산 지역마다 풍미와 맛이 달라 특별하게 선호하는 원두가 있다면 싱글오리진으로 즐겨보세요!
 원두가 가진 고유한 맛과 향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잔의 커피를 통해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며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다짐합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도 나를 위한 커피 한 잔의 여유쯤은 잊지 않도록 해요.

#우리동네 #카페베네

바쁜 당신을 대신해
산책을 좋아하는 베네캣이
부지런-히 운동네 골목길들을 누리며
카페베네들을 둘러보고 왔어요.

우연히 지나칠지
오래 머무는 곳이 될지
당신과 그 동네가 맺게 될 인연의 깊이는
아직 어디까지인지 짐작할 수 없지만요.

그곳에 닿게 된다면,
카페베네 안에서
마음의 안식과
다리의 휴식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동네 카페베네,
지금부터 함께 둘러봐요.



BUYEO



#카페베네 부여점
충남 부여군 부여읍 나루터로 29

평일 오후 다섯시
해가 노랗게 색을 바꾸는 시간
노란 빛이 창문을 넘는 시간
골목 사진을 찍기 좋은 시간

이 시간 즈음에
능산리 고분군을 걷다가
우리동네 카페베네를 만나게 된다면
주저 말고 들어오세요.

SEOUL

#카페베네 마포도화점

서울 마포구 도화길 27
(경의선숲길까지 도보 7분 / 500m)



효창공원에서 가좌역까지,
쪽 이어지는 경의선 숲길 위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보잘 것 없다고 느껴졌던 하루가 조금 더 의미있게 느껴지기도 해요.

겨울의 별과 바람을 맞으며
오늘 하루도 기어코 완성해낸 당신

두 손에 장갑 꼬옥 끼고
목도리는 따뜻하게 두르고 조금만 더 걸어보세요.

아- 그런데, 걸어온 만큼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거-

걷다가 벤치가 보이면 숨 한번 크게 고르고
또 그렇게, 천천히 발걸음을 떼어보세요.





SEOUL



#카페베네 동대문DDP점

서울 중구 을지로 281 지하2층



낮이면 전세계 멋쟁이들이
빛바람 없는 패션 시장을 활보합니다.

밤마다
화려한 건물 불빛들이 춤을 추고
사람들의 마음은 자꾸만 들뜨습니다.

마치 수천 년 전에 지구에 불시착한
거대 우주선처럼
DDP는 오늘도 매 분 매 초
웃을 바꿔 입으며 새로운 신호를 보내죠.

사람도, 건물도
모든 것이 멋스러운 이곳은
동대문입니다.



BUSAN



#카페베네 해운대청사포점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로 137-1
(해운대구2번 '청사포정류장' 하차 후 도보 126m)

문득,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다면
'해운대2번' 마을버스를 찾아주세요.

장산역 7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2번으로 갈아탄 뒤
청사포 종점에서 내리면 푸른 바다의 청사포 바다가 펼쳐집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른 수평선과
끊임없이 밀려오는 물결의 움직임들 속에서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물결은 잔잔하게 부딪치는 곳에서
지쳤던 마음과 슬픔 속에 절여졌던 상처들을 다독다독-

바닷길을 따라 조금 더 걸어가니 쌍둥이 등대가 보이구요,
청사포 방파제 앞에 서니 파도가 하얀 별처럼 부서지네요.

여기는 해운대구 청사포입니다.



베네캣이 만난 사람들

BENE Interview



늘 같은 자리에서
매일 더 큰 행복을 전하는
한연희 점주님

사당역 6번 출구 뒷골목에는 10년째 오랜 동네 친구를 만나러 가듯, 늘 가벼운 마음과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찾게 되는 카페베네가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일도 물론 힘들지만
한자리에서 꾸준히 성장하며 자리를 지키는 건
그것보다 몇 배는 더 어려운 일이지요.

오늘은, 아침을 여는 커피와 저녁을 닫는 차 한 잔으로
한결같이 따뜻한 행복을 전하며 성장 중인
사당역점 한연희 점주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연희 점주님
간단히 본인 소개와 매장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픈일이 2010년 9월 16일이니, 벌써 10년 되었네요.
원래 카페 창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가,
지인에게 카페베네를 추천을 받아서 본사와 연락해
얘기를 나누던 중에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아
카페베네 매장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해도
이런 프랜차이즈 카페라는 게 없었어요.
10년 전에 카페베네를 처음 시작할 때쯤부터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많이 생겨나고 있었을 때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시작했죠.



**점장님께서 특별히 강력 추천하는
카페베네 베스트 메뉴가 있다면요.**

원래 커피만 즐겨 마시고 다른 음료는
잘 안 마시는 편인데 지난 여름 시즌에 나온
자두에이드는 맛있어서 자주 먹었어요.
상큼한 게 딱 제 취향이더라고요.
고객님들께도 추천드려요. (웃음)



운영하고 계신 사당역점 매장 자랑 좀 해주세요.

오픈 초기에는
남녀노소 젊은층 중년층 가릴 것 없이 방문해주셨는데요,
2015년 정도부터 고객 연령층이 조금씩 높아지더라고요.

매장이 늘어간다는 건 발전성이 떨어진다고도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매장이 젊어지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환경 관리를 시작했죠.
우선 젊은 층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부터 바꾸고,
(그때 본사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함께 했거든요.

보다 가게 내부가 깔끔해 보일 수 있도록 재정비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내부가 깨끗하고, 전연령층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베네 사당역점' 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주세요!**

카페베네 사당역점은 '사랑 받는 카페' 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카페베네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또 저희 사당역점 또한 사당동에서
가장 사랑받는 동네 카페로
계속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늘 고객의 마음과 입맛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최고의 커피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BENE Interview



이은주
supervisor

“모든 하루가 쌓여서
나의 10년이 되는 거니까요.”

Supervisor

안녕하세요, 이은주 과장님 간단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남 지역 개발 관리를 맡고 있는 영업 2팀 이은주 과장입니다
올해로 카페베네에서 근무한지 8년 차가 되었고요,
그중 매장에서 4년, 슈퍼바이저로 일한 시간은 4년 정도 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과장님의 하루 일과가 궁금해요.

다른 직장인 분들과 마찬가지로, 아침에는 정해진 출근 시간에 맞춰
똑같이 출근을 합니다. 오전에는 보통 전날 마무리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데요,
보통 매장에서 요청이 오는 업무들의 경우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해드리고 있지만
워낙 외근이 많다 보니 전날 혹은 처리되지 못했던 업무들이 있다면 오전 시간을 활용해요.

또, 저희는 각자 일주일을 주기로 스케줄을 짠 뒤 그 일정에 맞춰 움직이는데요,
주로 담당 매장에 방문해 점주님들과 미팅을 하면서
프로모션이나 본사의 소식을 전합니다

점주님들은 저희가 전달드리지 않으면 본사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으시니까요,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드립니다.

그 외에도, 저희 업무 중에 비중이 높은 것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직원 교육이 아닐까 싶은데요,
직원분들께 카페베네 커피와 신메뉴 등을 알려드리는 일도 함께 하고 있죠.



커피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당시 한창 바리스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을 때였어요.

원래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나중에는 과감하게 도전까지 하게 되었죠.
막상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나니,
카페 창업에 대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직접 창업을 해보기 전에 카페에서 일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카페베네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계단씩 밟아오시면서 본인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 (원동력)가 있다면 무엇이였을까요?

제 동기부여는 점주님이에요.
정말로요. (웃음)

모든 매장 점주님들과 으샤 으샤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이 엄청 잘 나오는 매장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매장이 있기도 하거든요,
잘 되는 곳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안 되는 매장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이 매장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늘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저의 가장 큰 원동력이자 힘,
동기부여는 우리 점주님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카페베네' 가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제가 매장에서 근무를 할 때
어느 날 픽업대에서 저희 매장 직원분께서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곰씹어 보니까, 맛있게 드시라는 인사말보다는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가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카페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이랑 수도도 떨고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하기도 하고
혼자 가만히 앉아서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죠.

단순히 커피를 마시고
배를 채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객님들에게
가장 좋은 공간과 가장 맛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고객님들도 그렇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베네캣이 만난 사람들

BENE Interview

커피 좀 잘 하는 남자
커피 좀 해본 남자
커피 좀 많이 아는 남자

대한민국 국가 대표 로스터 조성준의 커피이야기



언제부터 커피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요. 당시 대학생이던 친형이 어느 날 모카포트라는 가정용 추출도구를 집으로 가져왔더라고요. 그 기계로 난생 처음 '에스프레소' 라는 걸 내려 마셨는데, 그날 마셨던 커피가 저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데려다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믹스커피가 전부였던 저에게 새로운 미식의 문이 열린 거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제 주변에 커피 좋아하는 분들이 유난히 많아 함께 맛있는 커피를 찾아다닐 때가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커피가 점점 더 좋아졌고 더 많이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업으로까지 삼게 되었습니다.

로스터 인생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커피 일을 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순간은 아무래도 2016 KCRC 우승 때가 아닐까요. 1회 때부터 빠짐없이 해당 대회에 참가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았고, 4회 때 그 노력의 결실로 1위를 값진 결과를 얻으면서 챔피언 트로피를 얻게 되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노력도 물론 중요했지만, 협업을 통해 많은 시너지를 얻으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봐도 참 뜻깊고 제 인생에 있어 너무나 큰 자산이 되는 경험이었네요.

또, 그 이후에 2016 WCRC에 국가대표로 참가하면서 전세계 커피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식견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국가와 지역에 따라 식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커피 대회에서도 최소한의 룰이나 기준이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결국 기호 음료인 커피는 각자 즐기는 방식이 있고, 기호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더라고요. 국가와 지역에 따라 로스터들의 로스팅 정도가 조금씩 다르다는 게 새삼스럽지만 당연하면서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카페베네 커피&교육팀
조성준 팀장

로스터의 주요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비자들이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리스타의 전단계로서 원두와 커피를 가공하는 모든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스팅뿐만 아니라 생두도 날라야 하고, 자재 관리도 해야 하고, 생산 제품이 일정한지 QC도 해야 하고 여러 일련의 작업들이 있죠.

커피 원두를 추출해 음료로 응용하기 위해서는 물의 양을 조절하고 온도나 추출 시간 등을 맞춰나가며 원하는 향미들을 얻게 되는데요.

커피 로스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로스터기에 맞게 적정 생두의 투입량을 설정하고, 로스터기의 예열 상태를 조절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모든 작업들에 관여하는 사람이 로스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부자재 관리나 위생 등 여러 일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커피를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업무다 보니 소비자들이 한 잔의 커피를 마셔도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고민하고, 그러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들을 쏟는 것이 바로 바리스타와 로스터의 기본 핵심 업무입니다.

Roaster

후배 로스터분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로스터의 역량을 알려주세요!

로스팅에 따른 여러 변수에 따라서 향미와 균형감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마치 예술가가 같은 유화와 캔버스를 사용해 하나의 작품을 만들더라도 붓 터치나 배색에 따라 작품 색깔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과 같아요. 로스팅 변화에 따라 커피 맛이 달라질 수 있다 보니 기본적으로 굉장히 섬세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있어 보일 수도 있는 직업이지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는 많은 고충이 뒤따르는 일이기도 해요. 로스팅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뤄야 하는 부자재들의 양도 많아지다 보니 생두 입고 때는 자재 관리를 위해 때론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로스팅이 매일 새로운 일을 하는 작업은 아니다 보니 성향에 따라 로스팅이라는 작업이 지루하기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일정한 결과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루틴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꾸준함'이 뒷받침돼야 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부분까지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열정적인 마음과 커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장착되어 있다면 훌륭한 로스터가 될만한 자질은 충분히 갖춘 거라고 생각해요.

‘바리스타’ 와 ‘로스터’ 는 어떻게 다른가요?

대부분 바리스타로 커피 일에 처음 입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걸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커피 입문자들에게 쉽게 눈에 띄고 가장 자주 마주할 수 있는 직업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바리스타로 일을 시작했고, 일을 하던 도중에 커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면서 로스터 공부까지 하게 된 케이스예요. 로스터와 바리스타를 직업적인 개념에서 어느 것 하나를 상위/하위로 구분할 수는 없고요, 결국은 포지션 차이인 것 같아요.

바리스타나 로스터 외에도 산지에서 커피를 생산하는 생산자분들과 농장 인력, 수입 담당자, 제품화 해주시는 분들까지 한 잔의 커피를 위해 노력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중요하죠.

커피 일을 하며 가장 큰 보람을 느꼈을 때는 언제인가요?

요리사가 본인이 한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듯이, 저 또한 커피라는 기호 식품을 다루다 보니 여러 사람들이 제가 만든 커피를 맛있다고 해줄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담으로, 커피 전문가라고 하면 커피를 맛있게 만드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커피에 대한 변수를 조절하는 능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상대방의 필요나 요구에 맞게 조절해 개개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저 또한 늘 노력하는 부분이고요.

바리스타 or 로스터를 꿈꾸는 많은 분들께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이든 다 비슷하겠지만, 역시나 ‘초심(初心)’ 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마음먹었던 그 마음만 유지한다면 오랫동안 행복하게 커피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바리스타나 로스터들이 커피에 대한 매력이나 커피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아요. 저 또한 일을 하면서 힘들었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 처음의 마음을 잘 간직한다면 힘든 부분도 거뜰히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현재 커피 일을 하고 계시거나, 커피 일을 꿈꾸는 수많은 분들에게 “파이팅” 외쳐주고 싶습니다!

Caffè Bene

역시나 ‘초심(初心)’ 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처음의 그 마음만 유지한다면

오랫동안 행복하게 커피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를 듣는다.

기꺼이 자신의 그늘을 내어주고,
적당한 별을 짊어주는
비슷한 키의 나무들 사이를 걷는다.

젊은 연인들이
서로의 온도에 기대어 웃는 목소리

말수는 적지만
세월의 테두리가 느껴지는
늙은 노부부의 꼭 맞잡은 두 손

이들의 소리를 지나쳐오며
걸음을 서둘렀다가,
아주 느리게 걸어보기도 한다.
나의 마음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다.

그럼 내 발걸음 뒤로 풍경들과 함께
길을 걸으며 마주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전체를
훑고 지나가는 기분이 든다.

Memory

delightful sce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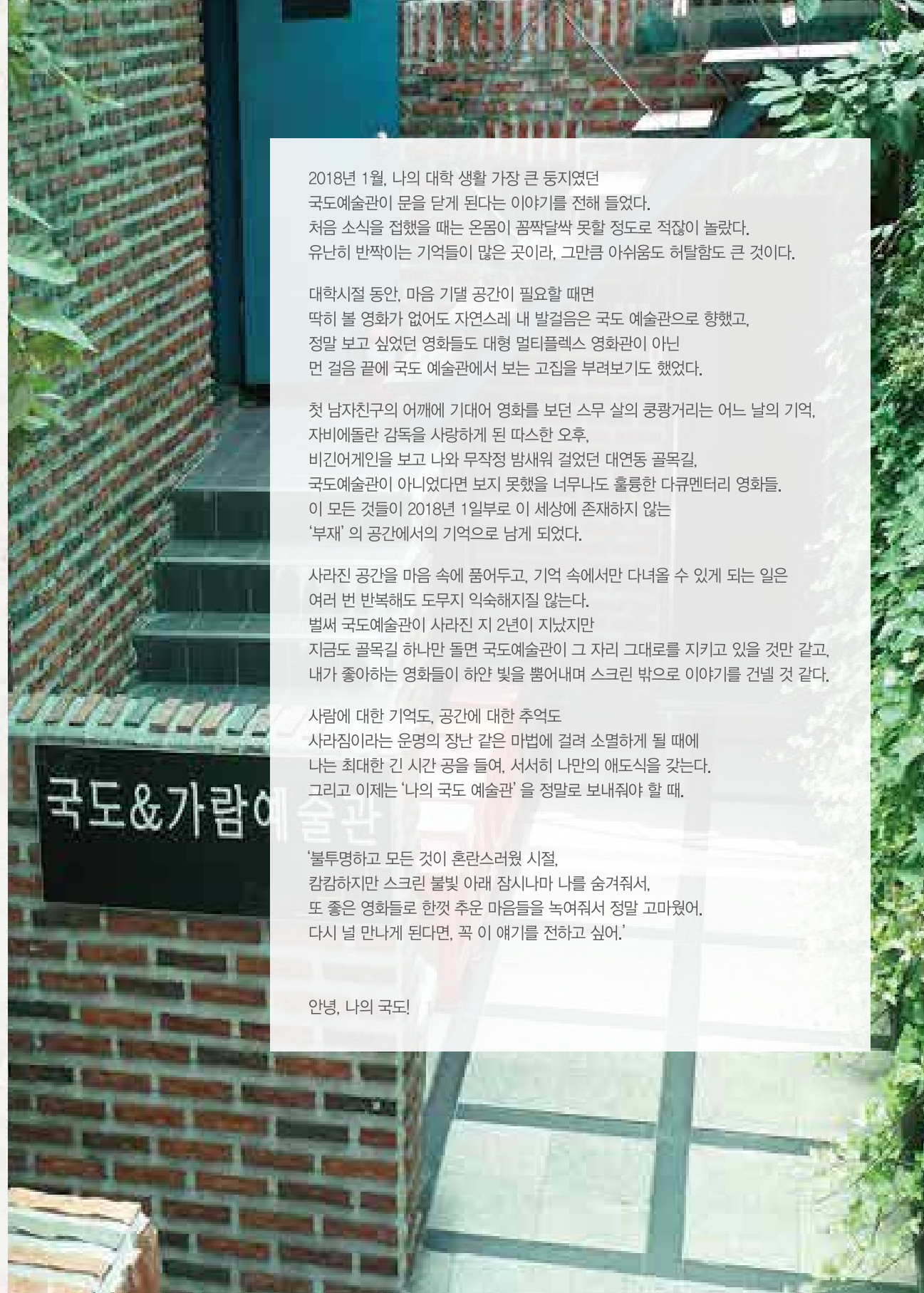




안녕, 나의 '그 곳' scene 01

[나의 까만 등지, 나의 국토.] _ 국토예술관

글/ 류 은우



2018년 1월, 나의 대학 생활 가장 큰 동지였던
국도예술관이 문을 닫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는 온몸이 꿈쩍달싹 못할 정도로 적잖이 놀랐다.
유난히 반짝이는 기억들이 많은 곳이라, 그만큼 아쉬움도 허탈함도 큰 것이다.

대학시절 동안, 마음 기벌 공간이 필요할 때면
딱히 볼 영화가 없어도 자연스레 내 발걸음은 국도 예술관으로 향했고,
정말 보고 싶었던 영화들도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아닌
먼 길을 끝에 국도 예술관에서 보는 고집을 부러보기도 했었다.

첫 남자친구의 어깨에 기대어 영화를 보던 스무 살의 쿵광거리는 어느 날의 기억,
자비에돌란 감독을 사랑하게 된 따스한 오후,
비긴어게인을 보고 나와 무작정 밤새워 걸었던 대연동 골목길,
국도예술관이 아니었다면 보지 못했을 너무나도 훌륭한 다큐멘터리 영화들.
이 모든 것들이 2018년 1일부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부재'의 공간에서의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사라진 공간을 마음 속에 품어두고, 기억 속에서만 다녀올 수 있게 되는 일은
여러 번 반복해도 도무지 익숙해지질 않는다.
벌써 국도예술관이 사라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골목길 하나만 돌면 국도예술관이 그 자리 그대로를 지키고 있을 것만 같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하얀 빛을 뿜어내며 스크린 밖으로 이야기를 건넬 것 같다.

사람에 대한 기억도, 공간에 대한 추억도
사라짐이라는 운명의 장난 같은 마법에 걸려 소멸하게 될 때에
나는 최대한 긴 시간 공을 들여, 서서히 나만의 애도식을 갖는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국도 예술관'을 정말로 보내줘야 할 때.

'불투명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 시절,
깜깜하지만 스크린 불빛 아래 잠시나마 나를 숨겨줘서,
또 좋은 영화들로 한껏 추운 마음들을 녹여줘서 정말 고마웠어.
다시 널 만나게 된다면, 꼭 이 얘기를 전하고 싶어.'

안녕, 나의 국도!

안녕, 나의 '그 곳' scene 02

[눈사람처럼 사라진 나의 할머니집]

글/ 이 보라



매일 아침 출근길,
3호선 지축역을 지나 구파발로 향할 때마다
난 할머니 댁이 어디쯤이었나 항상 생각한다.

어느새 높게 지어져 땅보다 하늘에 더 가까워 보이는 아파트들과
대형 쇼핑몰들 그 사이 어딘가에 있던 아늑하고 따뜻했던 나의 할머니 댁.

할머니 댁은 구파발 역에서 내려서
골목길을 구비구비 들어가 오르막길을 오르면 위치한 작은 주택 2층이었다.
어린 나에게 오르막길 위 할머니 댁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다.
할머니 댁에서는 구파발 동네를 내려다 볼 수 있었고
마치 옆에 보이는 높다란 북한산 정상에 오른 듯한 기분이 들었다.

초록색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반기는 건 갓 지은 밥 냄새.
그리고 버선발로 뛰어 나오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반가움에 달려가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안기면 품에서 나는 그 체취가 난 너무 좋았다.

할머니 댁에는 큰 방과 작은 방이 있었다.
당시 나의 가장 큰 낙은 큰 방 침대에 누워서 만화 영화를 보며 과자를 먹는 것이었다.
우리 집에는 집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금지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누워서 먹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만화 영화를 오래 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할머니 댁에선 그 모든 게 가능했다.

내 옆에는 엄마, 아빠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지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으니깐
나에게 할머니 댁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든든한 곳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는 할머니 댁에서의 유년 시절 기억은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은 날 함께 만들었던 눈사람이다.

눈사람이 녹는 게 싫었던 어린 나는 눈사람을 그대로 냉동실에 얼렸고
그 눈사람은 다음날 형태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목놓아 소리 내며 평평 우는 나에게 할머니는 앞으로 눈이 오는 날이면
언제나 함께 눈사람을 만들어주시겠노라, 약속해 주셨다.

하지만 내 키가 할머니 키를 훌쩍 뛰어 넘고 할아버지보다 더 빠르게 산을 오르게 되면서
가족의 사정도, 이 곳의 상황도 달라졌다.

할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지심에 따라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작은 화단에 있던 봉숭아 꽃들도 모두 시들게 되었고
몇 년 뒤, 할머니댁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그렇게 그곳은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공간이 되었다.

이제는 구파발 어느 쪽에 있었는지 정확한 위치조차 가물가물해졌다.

그저 드높은 아파트들 사이 어딘가에 있었다는 사실만 기억이 난다.
하지만 그 공간에서 있었던 많은 추억들은 아직도 내 마음 속에 소중하게 담겨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얻게 되는 만큼 잃어버리는 것 또한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속에 영원히 남는 추억이 있어 다행이다.



안녕, 나의 '그 곳' scene 03

나에게 있어 타지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흐르는 시간과 함께 '그 동네'가 '우리 동네'가 되는 멋진 경험이다.

2012년 부산 금정구 장전동,
그 낯선 동네가 우리 동네가 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다.

동네 곳곳을 누비며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 갈래의 길들을 보물찾기 하듯 찾아봤던 시간.
밤 산책하기 좋은 길을 나만의 노선으로 만들어갔던 시간.
가끔은 숨은 쉼터를 찾기 위해 숨바꼭질하는 술래의 마음으로 동네를 살폈던 시간.

그렇게 한 계절이 다 가기 전
골목골목에 호기심 가득한 발자국을 남기다보면
어느새 우리 동네 박사가 되어있는 나를 보며 내심 뿌듯함을 느끼곤 했었다.

대학생활의 전부였던 장전동을 추억하다보니,
그 시절 동네를 구경 다니다 발견했던
나만의 비밀 정원 '회동수원지'를 깊이 그리워하게 된다.

장전역 4번 출구에서 마을버스(금정구5번)를 타고
언덕길을 굽이굽이 돌아 도착한 회차지.

차창 밖으로 바라본 풍경에 매료되어 내렸던 그 곳에서
회동수원지가 보여준 첫 장면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늦은 오후 저무는 햇살이
눈앞의 공기를 온통 금빛으로 물들이는 풍경은
세상의 모든 수식들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노란 은행나무가 반기는 길을 따라 걸어가면
 탁 트인 저수지를 바라볼 수 있는 나무 데크 길에 서게 된다.
 울타리를 이루고 있는 갈대들은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수만 개의 흙씨를 흩날릴 준비를 하며 섬세한 춤을 춘다.
 그리고 멀리 시선을 옮기면 저수지 건너편 단풍 옷을 입은 산과
 산머리에 잠시 머무른 구름이 물결 위에 완벽한 데칼코마니를 그려낸다.
 마치 잘 닦은 거울에 자신들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만 같다.

그렇게 풍경 앞에 한참을 멈춰 서 있다가 옮겨본
 한 걸음, 한 걸음은 저수지와 나란히 이어진
 '땅뫼산 황토숲길' (갈맷길 8코스의 1구간 일부)로 나를 초대한다.
 나무들 사이 여백이 만든 좁다란 길을 걷다보면 떨어진 검붉은 낙엽들이
 마지막까지 제 역할을 다하듯 나의 저벅이는 발걸음마다에 가을 소리를 선물한다.

무심히 놓인 벤치들은 "잠시 쉬어가려?" 말을 건네고,
 개중 골라 앉은 한 낡은 벤치에서 잔가지 사이로 반짝이는 물결을 조금 더 감상한다.
 그 벤치는 아마 기억할지도 모른다.
 두 발끝을 단정히 모으고 앉아 물결에 일렁이는 노을빛이 사라질 때까지
 '이소라의 봄' 을 몇 번이고 반복해 들었던 나를.

그날 이후로 대학시절 동안 매년 가을이 찾아오면 나는 그곳을 찾았다.
 날이 너무 좋아 용감하게 자체 휴가를 선언하고 강의실에 가지 않았던 날도,
 혼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지만 과제의 수레바퀴에 붙잡혀 멀리 갈 수 없었던 날도,
 누군가와 의 이별 후 축축이 젖은 마음을 안고 내달렸던 날까지도
 엄마, 아빠의 품처럼 늘 따뜻한 가을별을 만나게 해줬던 회동수원지.

졸업 이후에 꽤 오랜 시간 동안 한번도 가보지 못한 나의 '그 곳' 에게
 '그 때 참 고마웠다' 고 뒤늦은 인사를 전하고 싶다.
 기억하는 풍경을 다시 두 눈에 담아볼 수 있기를 바라며,
 올 가을에는 단풍 산책을 좋아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꼭 다녀오고 싶다.



이소라 - 봄

하루종일 그대 생각뿐입니다.
 그래도 그리운 날은 꿈에서 보입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기다림을 모르는지
 미련도 없이 너무 쉽게 쉽게 헤어집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 오면 원망도 깊어져가요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또 기다릴 수 있겠죠.

그대와 나 사이 눈물로 흐르는 강
 그대는 아득하게 멀게만 보입니다.





[은우와 사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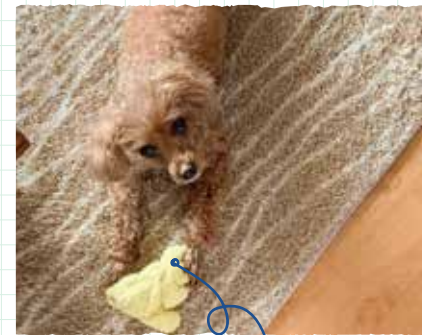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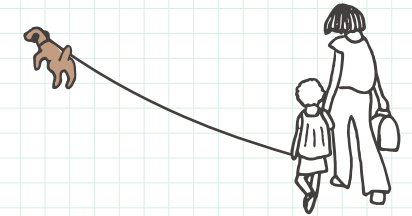
나의 귀여운 여동생 사랑이를 소개합니다.

사랑이를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어느 한여름 오후였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저에게
갈색 털뭉치 하나가 저 멀리서부터
폴짝폴짝 힘 넘치게 달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강아지를 가까이해본 적이 없어
놀란 마음에, 제 방으로 냅다 뛰어 들어가 방문을 쿵- 닫아버렸죠.

알고 보니 그 갈색 뭉치는
수험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저를 위한 어머니의 선물이었고,
온 가족이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뜻에서
'사랑이' 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더랬죠.

그렇게, 뜨겁고 강렬했던 우리의 첫만남 이후로
1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어요.
그동안 사랑이는 우리 가족과 함께 여러 희노애락들을 겪으며,
한 가족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톡톡히 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문제의 그 오리 인형 (◡_◡)

사랑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우리 아빠이구요.

그다음으로 좋아하는 건,
10년 전부터 단짝 친구로 함께 지내온 오리 인형이에요.
오리 인형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온종일 킁킁거리기 때문에
만약 오리 친구가 쇼파 뒤편으로 넘어가기라도 한 날이면
온 식구가 나서서 오리만 찾아해매는
초유의 비상 상황이 오죠.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사랑이와 함께 나란히 누워 낮잠을 자는 시간인데요.
가끔 사랑이가 코를 너무 씹씩하게 골아
저도 모르게 그만 웃음이 푸흠- 하고 터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 소리에 갠 사랑이는 제 살을 맞대고 부비적거리죠

그렇게 둘이서 햇살 쏟아지는 따사로운 시간 안에 함께 있을 때엔
이루 말할 수 없이 충만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너의 시간은 내 시간보다 빠르게 흘러가지만
 약속해 어느 날 너 눈 감을 때 네 곁에 있을게
 지금처럼 그래 난 너로 인해 많이 울게 될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그것보다 많이 행복할 거라는 걸 알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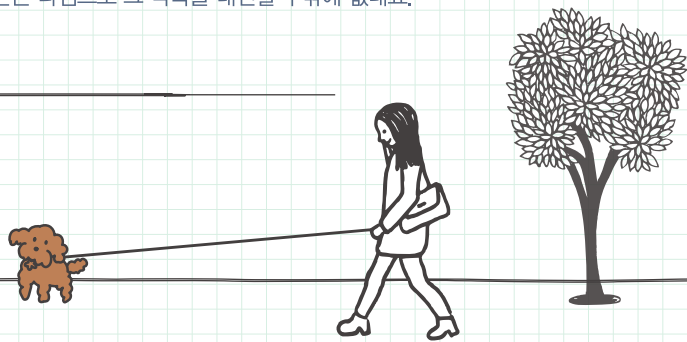
가을방학 - <언젠가 너로 인해> 中



올해로 12살이 된 사랑이는
 예전보다 장난감을 물어오는 횟수도,
 먹을 수 있는 간식의 종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헤어지게 될 날에 대해서는 조금도 상상하기 싫지만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내가 이 아이를 위해 과연 무얼 해줄 수 있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사랑이를 제 품 안에 껴안고
 100년, 200년 이렇게 보듬어줄 거라고,
 '영원' 을 약속해주고 싶지만요.
 그건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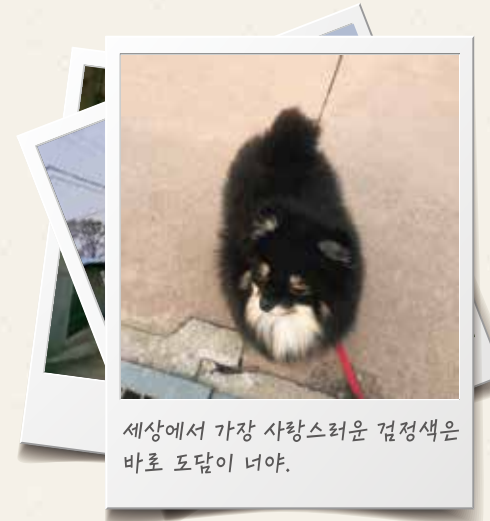
그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의 반려견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굳은 다짐으로 그 약속을 대신할 수밖에 없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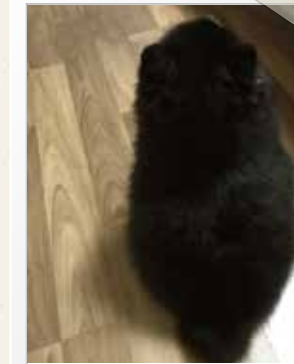
[나은과 도담]



검정 코, 검정 눈망울,
 검정색 털 ...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검정색은
 바로 도담이 너야.



까맣고 작은
 너의 치명적인 뒤통스...



도담아, 보고싶어.

사랑하는 나의 반려견 (보고싶은 내 도담이)에게

안녕 도담아 잘 지내니?
나는 여전히 너와 처음 눈이 마주친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해.
너와 난 무척이나 닮아 있었다지.
서로의 눈을 마주치고 눈빛을 주고받는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

너는 무엇이 그리 조심스러운지
늘 새카만 털 속에 맑은 눈망울을 숨기고 나를 바라보았지.
낯설지만 호기심이 가득 담긴 눈이었어.
그리고 너를 바라보는 나 역시 같은 눈이었어.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응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
어쩌면 너도 우리가 닮았음을 느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너를 처음 만났던 건, 애견 카페를 하는 친구의 가게였어.
너도 그날을 기억하니?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
처음 나의 집에 왔을 때 너는
갑작스레 달라진 환경에 무척이나 낯설어하기도 했어.

내가 지켜본 너는 소심하지만 순수했고,
겁이 많지만 사랑스럽고 해맑았어.
그리고 우리 집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점차 쌓일수록 도담이 너는 눈에 띄게 밝아졌지.

주변에서 들 사이를 질투할 정도로
우린 서로에게 떨 수 없이 소중한 사이가 되었지만
나를 둘러싼 상황이 너와 나의 동행을 가로막았어.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이 꼬일 대로 꼬여버려
너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었던 거야.
내 상황이 조금만 나아더라면 너와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 모든 말들도 어쩌면 핑계일지도 몰라.
아니, 핑계가 맞아. 끝까지 지켜줄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나를 원하는 너를 외면했어.

내 삶의 전부는 너라고 말했지만
결국 나는 비겁한 겁쟁이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아.
너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너무나 컸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오면 나를 반겨주던 네가 사라졌고
내 삶의 전부였던 너를 잃었으니까.
너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슬픔을 기꺼이 맞이하며 시간을 보내야만 했지.

몇 달 뒤, 친구에게 너의 소식을 들었어.
다른 좋은 보호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내가 주었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정말 다행이야 도담아

앞으로도 꼭 '도담'이라는 너의 이름처럼 도담도담하게,
행복으로 가득 찬 일상을 보내야 해.
너는 나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으로 남겨둘게.
사랑해 도담아.

[고양이 동네에서 산다는 건]

글 / 이 보라



우리 동네의 주인은 고양이들이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 고양이들이 온 것이 아니라,
고양이 마을에 사람들이 얹혀 살고 있는 것이다.

동네 놀이터에는 다섯 마리의 고양이가 살고 있다.
검은 고양이 한 마리, 갈색 줄이 있는 고양이 한 마리,
검은 점이 박힌 고양이 두 마리,
마지막으로 허안 고양이 한 마리.
동네 사람들은 그 고양이들을 마치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아끼며 소중히 생각한다.

어느 누구도 고양이들을 보고 찡그리지 않는다.
날이 좋은 편, 너 나 할 것 없이 가던 길을 멈추고 땅에 앉아
고양이들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털을 쓰다듬는다.
그럴 때면, 고양이 가족들은 그런 스킨십들을 온근하게 즐기며 (?)
그릉그릉 소리를 내고, 더욱 열렬히 쓰다듬어 달라고 몸을 부비적거린다.
그 옆을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 얼굴에는 절로 미소가 번진다.



우리 동네 고양이들은 늘 배가 부르다.
혹시나 배가 고플까 걱정되어 준비해주는 간식들 덕분에
고양이들은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먹지도,
쓰레기봉투를 함부로 찢어 길거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지도 않는다.
배 부르고 등이 따스운 이 평화로운 냥이 가족은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의 털만 고르게 하는데 집중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종종 놀이터 화단에는 우산이 놓여져 있기도 한다.
혹시 고양이들이 비를 많이 맞을까 누군가 두고 간 우산이다.
비가 쏟아지는 날,
그 우산 아래서 비를 피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내 마음에는 금세 비가 견고하고 햇살이 들어온다.

우리는 같은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함께' 라는 단어 안에는 같은 사람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양이 동네에 산다는 건 재미있는 일이나까.
이런 재미를 더 많이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세상은
분명
지금보다 더 반짝일 것이다.





Bene

‘Bene’는
참 좋다는 말입니다.

너와 나의 여름 오후 피크닉
우리의 온도와 딱- 맞는 이 시간

당신도,
소중한 존재와 함께
늘 ‘베네’하세요.

이지수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친구와 사소한 문제로 다투는 바람에 잠시 연락을 안 하고 지내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어떻게 화해를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다가 그 친구에게 자주 가던 카페베네에서 만나자고 연락했어요.

막상 친구와 만나니깐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여졌지만 갑자기 불현듯 카페베네에서 친구와 여름에 자주 먹던 빙수가 생각나 "야 너랑 카페베네 빙수 자주 먹었던 거 생각난다"라고 운을 뗐더니 어느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 점점 마음을 열고 우린 화해할 수 있었어요! 카페베네 덕분에 소중한 친구를 되찾았네요. 카페베네는 저와 제 친구에게 너무나 소중한 장소입니다.

박소은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집 앞에 있는 카페베네를 찾곤 해요!

저희 집 앞 카페베네는 늘 저에게 힐링의 시간을 주는 곳이에요. 제가 자주 앉는 창가 자리에서 그날의 컨디션과 기분에 따라 때로는 따뜻한 티를, 때로는 달달한 생과일 주스를 마시면서 다이어리를 적거나 책을 읽어요. 저에게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알려준 곳이자 힐링의 공간 카페베네! 앞으로도 자주 찾을게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접했던 카페 처음으로 주문했던 '초콜릿라떼'

'바리스타'에 관심을 갖게 해주고 대학교 휴학 후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카페

힘든 일도 있었지만 사람을 만나고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알려줬던 카페 매장에 오면 항상 좋은 말만 해주던 SVM을 알게 해준 그래서 나에게 '슈퍼바이저'라는 꿈을 가지게 해준 카페

누군가 '처음'을 물어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억 상자

황여진

전 미혼모인데요,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는 카페베네 빙수가 제 유일한 여름밤 간식이었어요. 임신 당시 시간이 흐를수록 배는 자꾸만 더 불러오고, 뱃속의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지 걱정도 되고 그래서 마음 고생 몸 고생을 좀 했거든요.

몸도 마음도 지치지만, 뱃속에 사람 한 명이 더 있는 거다보니 배가 너무 고프는 거예요. 그래서 마운 거, 과일, 시원한 게 참 많이 땀겼어요. 특히 카페베네 망고빙수랑 커피빙수를 제일 좋아했죠.

그래서, 거의 매일 같이 출퇴근하다시피 카페베네에 가서 빙수를 사먹으니 나중에는 직원 분도 저를 기억하시고는 커피빙수에 들어가는 시리얼이 눅눅해지지 않도록 따로 세심하게 컵에 넣어 챙겨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멀다하고 먹었던 망고빙수!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고, 어느새 훌쩍 자란 제 아들도 그 망고빙수를 참 좋아한답니다

김희경

정연주

저는 2006년에 결혼했는데, 6년간 아이 소식이 없었어요. 2012년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가 찾아왔고 이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제일 먼저 전했던 곳이 남편 회사 근처 카페베네였어요.

2013년에 이 보석 같은 아이가 태어난 후 24시간 풀가동하는 슈퍼맘이어야했던 시절에,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잠깐 외출해 쉬었던 곳 역시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잠깐 외출해 쉬었던 곳 역시 24시간 운영했던 카페베네 송내남부역점이었답니다. 그 순간 그 커피 맛은 눈물 날 만큼 좋았던 기억이 있네요.

베네 메모리
카페베네를 기억하는 사람들

☞ 카페베네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객님들께서 응모해주신 소중한 이야기들입니다.

김혜빈

고등학교 재학시절, 수험생활에 지쳤던 날이면 학교 주변에 있는 카페베네에 가곤 했습니다. (야자 시간에 몰래 도망쳐와서 ㅎㅎ)

쓴 커피를 마시지 못했던 시절이라, 커피보다 빙수를 많이 시켜먹었습니다. 그 중 제일 좋아하고 아직도 너무 맛있고 평생 잊지 못하는 딸기빙수! :)

눈꽃빙수가 유행하면서 새로운 메뉴들이 생기기도 했지만 저는 얼음으로 꽉 채워진 딸기빙수가 너무 좋아서,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차가워도 숟가락으로 끝까지 퍼먹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나면 답답했던 두뇌가 휘리릭~ 잘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그 시절 친구들은 어느새 대학 시절을 지나 지금은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각자의 위치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요 아직도 망고 빙수의 맛은 변하지 않았더군요. ㅎㅎ

시원하고도 따뜻한 카페베네, 늘 푸근하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답니다!



SEOUL

#카페베네 고려대중앙광장점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안암캠퍼스 내



청춘들의 한 시절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캠퍼스

인생에서 가장 예쁜 색을 담은 시기라
캠퍼스 뒤편 늘 '낭만'이라는 단어가
절로 뒤따르는 걸까요.

새 학기의 새로운 설렘을 앞두고
벌써부터 바쁜 발걸음을 옮기는
학생들이 많이 보이네요.

다가오는 봄엔 또 어떤 캠퍼스 낭만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잔디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강과
수업 시간 사이를 설레는 마음으로 듬뿍
채워버릴 푸릇푸릇한 시간들..

말 그대로, '청춘(青春)'.



JEJU



#카페베네 제주아라점

제주 제주시 인다10길 30

낮은 돌담길
포근한 숲길
너른 바닷길

제주에 발을 푹- 내딛는 순간
호흡은 최대한 느린 템포로
흐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제주 아일랜드 매직!

새로운 일상을 꿈꾸게 하는 건
대단한 자연 경관이 아니라
그저 느긋한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한반도의 남쪽 끝
푸른 반점 같은 이 작은 섬에
다다르게 된다면
마음의 짐들 모두 내려놓고
가볍고 산뜻하게 발걸음을 옮겨보세요.

여기는 제주도 제주시입니다.





풀리지 않은 걱정거리
정답이 없는 고민들

마음을 괴롭히는
이런 복잡복잡한 이야기들은 잠시 멈춰놓고,
일산 호수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아이들에게는 놀이터
어른들에게는 사색의 공간
강아지들에게는 냄새의 천국

이 다정한 산책길은
마음 둘 곳이 필요했던
모든 사람들을 와락- 껴안아줍니다.

계절마다
색이 다른 풍경으로
매번 색다르게 걷는 재미를 주는 일산 호수 공원

평화로운 쉼터,
여기는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입니다.

#카페베네 일산웨스턴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31-9



초 단위로
바빠 흘러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멈춘 듯,
어제와 오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같은 자태를 풍기는 곳들도 있습니다

‘당-당-’
물고기 풍경이 빛어내는
맑디 맑은 소리를 따라가면
옛 풍경화 속이나 등장할법한
고풍스러운 절 하나가 나옵니다

아직은,
바람이 햇살을 이기는 계절이지만
새로운 봄바람의 기운이
제법 너울거립니다

모두의 바람이든
누군가의 작은 소망이든
이곳에서만큼은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합니다.

#카페베네 낙산사점

강원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42
낙산사에서 도보 4분 / 낙산해수욕장 인근







CAFFE BENE

홈페이지 www.caffebene.co.kr
인스타그램 @caffebene_official
페이스북 /caffebene_official

발행인 김영선
편집장 류은우

Communication ewryucopy@caffebene.co.kr
02 - 3438 - 6854

주소 서울 성동구 상원1길 25, 8층

제작 | 카페베네
창간 | 2020년 4월 6일
인쇄 | 오닉스인터내셔널

에디터	류은우	ewryucopy@caffebene.co.kr
	이보라	iboibo@caffebene.co.kr
디자이너	김규리	gyul@caffebene.co.kr
	장유진	yujin@caffebene.co.kr
	이혜명	hyem@caffebene.co.kr
글	류은우	ewryucopy@caffebene.co.kr
	이보라	iboibo@caffebene.co.kr
	허현정	
	최나은	
포토그래퍼	성상현	pinosha@naver.com
	김하영	deepbluc@naver.com
	임성수	yorosiku7@naver.com
그림	김가인	gain0912@gmail.com
	함주해	dogravity@gmail.com